

우리말은 왜 고통을 겪는가

김흥식

《한글전쟁》 지은이

우리말은 왜 고통을 겪는가?

꽤나 오랜 시간 이런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답을 찾았다. 알고 보니 간단했다. 우리 겨레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말이란 게 사람을 동물로부터 탈출시킨 가장 중요한 수단이니만큼 말과 사람을 나누어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러니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또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겨레는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수구 꼴통’과 ‘좌파 빨갱이’로 나뉘고, 경제적으로는 1:99의 극단적인 풍요와 빈곤으로 나뉘며, 사회적으로는 ‘갑’과 ‘을’로 나뉘어 있으니 어찌 모든 구성원이 고통을 겪지 않겠는가! 그뿐이라, 지역적·성(性)적 나뉘는 물론 가장 포용적이어야 할 종교까지 나누는 데 적극적이니, 우리 겨레는 말로만 한 겨레일 뿐 갈가리 찢긴 모자이크 겨레라고 하는 편이 맞을지 모른다.

극단의 시대, 극단주의자들의 언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이다.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온갖 분야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친다. 언어생활에서 그러한 극단화를 보여 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너무’라는 말이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너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 결국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는 중도적 의미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훨씬 넘어선 상태’는 극단적인 사회가 추구하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너무’보다는 ‘무척, 참, 매우, 정말, 훨씬’ 같은 다양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극단화된 사람들은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내 버림받을 것처럼 여긴다.

“언어는 어릴 적에 각인되므로 되도록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 이중 언어 사용은 크게 이롭다. 풍부한 정보들을 언어 삶이 필요로워진다. 마음이 민첩하고 갈등을 잘 풀고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당연히 지능 계수가 올라가고 소득도 높아진다. 반면에 여러 언어들을 동시에 배우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은 없다. 통념과 달리 어릴 적에 배워도 심리적 불안이나 정체성의 혼란이 나오지 않는다.”

- 복거일, <영어는 어떤 언어인가?>, 《중앙일보》(2017. 7. 27.)

극단화의 사례 가운데 또 하나로 영어 공용론을 들 수 있다. 영어 공용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잘살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소설가 복거일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지능 계수가 올라가고 치매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까지 덧붙인다. 것처럼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우리말은 못해도 영어는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말 속에 침투한 외국어 문법도 우리말을 파괴하는 존재다. 외래어의 과도한 사용도 문제지만, 이른바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는 영어식 표현이나 3인칭 대명사인 ‘그, 그것, 그녀, 그들’의 끝없는 사용도 문장을 읽기 힘들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말 어법상의 비문(非文)이 버젓이 사용되는 실정일 것이다. 이미 우리말 어법의 중추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고 있으니 바로 수동태의 과도한 사용이다.

보여진다 - 보여지고 있다 - 느껴진다 - 되어진다 - 익혀진다 - 그려진다
-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주인공이 되는 언어생활은 서양식 사고의 산물이다. 이러한 사물 우선주의는 수동태의 빈번한 사용으로 현실화된다. 반면에 ‘하늘이 곧 사람(人乃天)’이라 여기는 우리 겨레가 사용하는 우리말은 수동태의 사용을 가능하면 피한다. 사람을 주인공으로 언어생활이 가능하도록, 언어를 사용하는 ‘나’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말을 만들고 다듬어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그런데 영어를 접한 지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주인공 자리를 사물들에 넘겨주는 데 거리낌이 없다. 지금 당장 티브이를 켜 보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위와 같은 표현을 쓰는 진행자들을 무수히 만날 수 있으니.

그렇다면 극단주의자들은 우리말을 가벼이 여기는 진영에만 있는 것일까?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는 반드시 반대쪽 극단주의자도 있기 마련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글을 토박이 우리말과 동일시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수천 년 사용해 온 우리말 속의 한자어를 금기시하기 시작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극단주의가 그러하듯 한번 생겨난 후에는 그 주장이 점차 과격해진다.

일본식 한자나 표현을 쓰지 말자는 주장도 그렇다. 물론 나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겨레의 문화를 말소하고자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일본식 한자나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당연하다. 서구 근대 문물의 대부분이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붙인 명칭과 표현이 일본화될 수밖에 …….

언어를 다루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재판이 아니다. 증거 자료를 배심원(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말과 글을 계발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결국 언어생활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한글만이 뛰어난 문자일까?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알파벳 약자를 ‘오이시디’로 쓰는 신문이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이디시’와 ‘오시이디’, ‘오디이시’를 책 읽는 속도로 구분할 수 있는 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말을 사랑할수록 언어생활을 이렇게 교조적 방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고작해야 수십 년 전에 우리는 컴퓨터(나는 중국이 이 기계를 자신들의 문자와 말로 ‘덴나오[電腦]’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없이 부럽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문자라는 이유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향해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딱 들어맞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진 우리가 결국 21세기 동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고 의기양양했다.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다. 쉬운 글자를 가졌다고 해서 문맹을 더 쉽게 극복하거나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어려우면 그만큼 언어생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문장력·독해력·표현력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 쉬운 글자를 사용하다 보면 고작해야 의식주 해결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취되어 문명의 산물인 지적·문화적·심리적 소통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문자와 말은 결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그 자체로서 인류 문명을 구성하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말과 한글이 소중하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말과 글도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본 가나 문자의 어설픈 형태와 기원을 알면 한글을 가진 우리로서는 우쭐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 문자를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라틴어 번역 능력을 확보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독서 국가를 이루었다. 우리가 이미 화석화(化石化)시켜 버린 종이 백과사전을 그들은 오늘도 발행하고 있다. 기록하지 않는 문명이 있었 던가? 백 년 후, 아니 천 년 후 인류는 동아시아의 문명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기억해 줄 것인가, 자문(自問)해 본다.

중국어 한자는 또 어떤가? 도대체 한 글자를 입력하는 데 한글에 비해 짧게는 서너 배, 길게는 열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문자를 이 첨단 의 시대에 사용하다니! 영어 공용론자들의 시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 한글 국수주의자들 입장이라고 무에 그리 다르랴. 그러나 어찌랴! 세계는 이미 영어 종주국인 미국을 대신해 한자 종주국인 중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 …….

한자, 라틴어, 우리말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말의 대표적 어원인 한자를 그토록 멀리하고자 하는가! 나는 ‘미분(微分)’을 청소년들에게 “1. 어떤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일. 2. 함수 $y=f(x)$ 에서 도함수 $f'(x)$ 와 x 의 증분(增分) Δx 를 곱한 것을 함수 $y=f(x)$ 에 대하여 이르는 말. $dy=f'(x)\Delta x$ 로 표시한다.”라고 외우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 그 대신 자기 스스로 “미분(微分)은 ‘작을 미, 나눌 분’이구나. 그렇다면 한 번에 값을 구하기 힘든 것을 작게 나누어 값을 구하는 것이겠군.” 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기를 바란다. 같은 까닭으로 ‘등고선(等高線)’을 ‘같은 높이의 지역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외우는 대신 “아, 높이가 같은 선이구나.” 하고 추론하기를 바란다. 스스로 추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움이라는 행위를 확장하기를 바란다.

서양인들이 왜 라틴어를 배우는지 아시는가? 그 까닭은 간단하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뿌리가 라틴어이기 때문이다. 흔히 영어를 소리글자라고 하지만, 영어를 분해하면 소리글자일지 모르나 단어로 보면 뜻글자에 가깝다.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으나 그것들이 모여 어떤 뜻을 나타내면 쉽게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전체를 외우고, 당연히 어원(語原)을 중심으로 외운다. ‘re-’가 들어가면 ‘다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pre-’가 들어가면 ‘미리, 이전의’의 뜻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영어의 성격이 바로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 아닌가! 단순히 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틴어 의미의 변형·비유·확장·추가 과정을 거쳐 오늘날 영어의 표현 가운데 많은 부분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문명 발달 과정이다. 그래서 라틴어 공부하는 자신들의 삶의 근본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러한 사례를 동양에 적용하면 ‘근사치(近似值)’, ‘근거리(近距離)’, ‘근처(近處)’, ‘근대(近代)’를 하나하나 외우는 대신 ‘가까울 근(近)’ 한 글자를 통해 뜻을 추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왜 우리는 우리 문명의 뿌리가 되는 요소를 활용하면 안 된단 말인가. 고작 3천여 자(이것도 반복, 변형, 중복 사용 등의 경우를 포함하면 1천여 자에 머무른다.)의 한자를 배우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 일일까?

청소년들의 학습에 부담을 준다거나 한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따위의 비합리적인 근거는 거두어들이다. 아무리 한자가 어려워도 미분과 적분, 함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황산화수소의 화학식, $E=mc^2$ 로 표기되는 상대성 이론보다 어렵지 않다. 1년이면 배우고도 남을 3천 자의 한자는 평생 우리 사고력의 원천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한자 덕분에 산화철(酸化鐵)이 무엇인지, 상대성 이론(相對性理論)이 무엇인지 어렵잖아게나마 이해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다시 의문을 품는다.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등장했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당연히 ‘Theory of Relativity’ 또는 아인슈타인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Relativitätstheorie’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를 한글로 ‘시어리 오브 렐러티버티’라고 쓰거나 ‘렐라티비테츠 테오리’라고 쓴다고 우리 고유의 언어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세컨더리 보이콧’, ‘노블 세븐’, ‘타이틀 홀더’, ‘베 이비부머’, ‘J노믹스’, ‘(복지 재정) 로드맵’, ‘(집값 폭등) 트라우마’, ‘투 트랙 (수사)’, ‘레드카펫’, ‘뉴웨이브’, ‘코리아 패싱’, ‘노룩패스’ … 오늘 자 신문 기사에서 단 3분 만에 찾아낸 표현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3천 개의 영어 단어를 모르고서는 신문을 읽을 수 없다. 방송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부지기수로 등장한다.

<From Here to Eternity>라는 영화가 있다. 만일 이 영화가 2017년에 개봉되었다면 제목은 아마도 <프롬 히어 투 이터너티> 또는 <이터너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1953년에 개봉된 덕에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매우 시(詩)적인 제목을 갖게 되었다. 수많은 한자어와 공존하는 우리말에서 인위적으로 한자어를 배제한다고 해서 토박이 우리말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풍선 효과는 언어생활에서도 일어난다.

단어는 객관적이지 않다

더욱 두려운 것은 단어가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의식이다. 스마트폰을 당연히 ‘스마트폰’이라 여기는 언어 의식이 나는 두렵다. ‘Smart Phone’은 과연 ‘똑똑한, 영리한, 현명한 전화’인가? 도대체 그 이름은 누가 지은 것일까? 언어의 신이 지어 내려 주신 것일까? 아니면 시민들이 모여 그렇게 부르자고 합의한 것일까? 당연히 그 물건을 팔고 싶은 발명자가 붙인 것이 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해도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대신할 이름을 붙일 힘은 없다. 나 홀로 ‘수중자판기(手中自販機)’, 즉 ‘손안의 자동판매기’라고 부른다 한들 돈키호테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초등학생, 아니 유아를 둔 부모에게도 이 기계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수중자판기’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대학생들조차 구입을 꺼렸을지 모른다.

‘럭셔리’라는 한글로 표현되는 ‘Luxury’는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사치스러운’으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단어는 ‘명품’이라는 뜻을 갖는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 변화를 이끈 건 당연히 장사치들이다. 모든 것이 경제적 성과로 평가되는 오늘날, 경제 분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정치, 언론, 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장사치들의 주장은 그대로 절대적 가치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 힘으로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사고 또한 단어(상품)를 만든 장사치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시각이 담긴 우리만의 조어(造語)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어의 산물이다!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는 ‘문화’의 산물이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우리’라고 칭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천 년 동안 헤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문화, 즉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를 공유했다면 그들은 ‘우리’다. 그리고 그 문화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언어’다. 아무리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고 해도 언어가 다르면 처음에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결국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삶은 수렴되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삶은 분산된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핵심이다.

그런 ‘우리’의 언어가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이름을 그토록 지워 버리려고 했던 일제에 맞서 우리의 이름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기억이 고작 70여 년 전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그리고 능동적 창씨개명을 하는 이들의 99퍼센트는 서양 이름을 택한다. 물론 이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칭이나 별칭, 예명 따위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양식 외모, 서양식 언어, 서양식 문화, 서양식 음식, 서양식 삶을 추구하는 사회의 지향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서양식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별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24시간 방송하는 공영 방송에서 연예인과 스포츠, 날씨 기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단 5분, 아니 1분이라도 우리말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우리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뉴스 끝에 방송하는 꿈을 꿀 수는 없는 것인가? 비합리도 관습이 되면 합리로 치부되고, 합리도 결방으로 내몰리면 낯선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 말을 다루는 이들은 ‘너무’ 안전한 것 아닌가, 스스로 묻는다. 안타깝고 안타깝다.